

전북교육청, ‘온책읽기 학교대출 서비스’ 전면 시행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

6개 학생교육문화관 · 748개 학교도서관 협력체계 구축

학급 단위 도서 지원 가능… 독서 · 인문교육 강화 실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온책읽기 학교대출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온책읽기’란 책 한 권을 온전히 읽고 다른 친구와 생각을 교류하는 확장형 독서활동으로, 지난해에는 각 학생교육문화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됐다.

올해부터는 학교도서관시스템(독서

로DLS) 상호대차 기능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한 도내 전체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아침 10분 독서와 수업 활용 등 학급 단위 복본(동일)도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학교도서관은 지역 제한 없이 6개 학생교육문화관이 보유한 328개 책꾸러미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전북지방우정청(청장 최동원)과 협력해 6개 학생교육문화관과 748

개 학교도서관 간의 책꾸러미 배송 및 수거 등 도서 이동도 원활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온책읽기 학교대출 서비스는 1교당 6종(180권 내외), 60일간 이용 가능하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도서관과 학생교육문화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생의 독서활동을 다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 학생들이 좋은 책을 읽고, 깊이 있는 독서경험을 통해 문해력은 물론 학력신장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025학년도 첫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

오늘 도내 106개 고교 1~3학년 4만6000여명 응시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이하 학평)가 26일 도내 106개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2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학평 응시 학생 수는 고1 1만5,150명, 고2 1만5,300명, 고3 1만5,795명이다.

3월 학평은 1교시 국어영역, 2교시 수학영역, 3교시 영어영역, 4교시 한국사영역, 4교시 탐구영역(사회, 과학) 순으로 실시된다. 직업탐구 영역과 제

2외국어 · 한문 영역은 이번 시험에서 제외됐다.

고1은 중학교 교육과정 전 범위에서 출제되고, 고2는 고1 전 범위, 고3은 고1~2 전 범위에서 출제된다.

다만, 고3 수학영역은 선택과목에 따라 출제 범위가 다르다. 또 고1은 탐구영역이 절대평가로 진행된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올해 학년별로 총 4회 학평을 시행할 예정이다. 고3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6월 · 9월

모의평가와 전북교육청 주관 8월 · 10월 모의고사를 포함해 총 8회 시행한다.

학평 결과는 4월 14~28일 2주간 온라인을 통해 개별 공지된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학평은 2026학년도 수능을 대비한 첫 실전 시험으로 자신의 학습 상태를 점검하고 향후 학습전략을 세울 중요한 기회”라며 “특히 고 학생은 입학 후 첫 평가인 만큼 새로운 시험 유형을 익히고 중장기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고교생 주도형

해외연수 운영

도교육청, 글로벌 프론티어

해외탐방 참가자 모집 나서

4월 14일까지 신청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글로벌 프론티어 해외탐방’ 참가자 모집에 나섰다.

25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글로벌 프론티어 해외탐방은 도내 고등학생 100명을 총 25개 팀으로 운영되며, 각 팀은 동일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4명과 지도교사 1명으로 구성된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된 해외 기관, 공동체, 연구소 등을 방문하며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연수 국가는 팀별 주제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연수 기간은 약 7일이다.

1인당 최대 250만원, 1팀당 최대 1,25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학기 중 연수 운영시 출석 인정 결석 처리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도 관리할 수 있다.

참여 희망 학생은 4월 14일까지 학교장 추천서, 해외탐방 제출서류를 작성해 지도교사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류 및 발표심사를 거쳐 5월 16일 소속 학교에 안내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교육청 누리집(정책기획과-업무마당-해외연수 · 국제교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조건 및 유의사항은 각 학교에 문의하면 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글로벌 프론티어 해외탐방은 학생들이 관심 분야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질문·가설·검증을 통해 사고력을 키우는 탐구 중심의 연수”라며 “소통과 협업,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을 발휘하는 학생주도 해외연수는 우리 학생들이 미래핵심 인재로 커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QS 세계대학평가 지방 거점국립대 1위 ‘쾌거’

전북대 화학과, 3년 연속 글로벌 순위 상승… 연구 역량 입증

전북대학교 화학과(학과장 이승재)가 QS(Quacquarelli Symonds)에서 발표한 ‘2025 QS 세계대학평가 세부 학문 분야별 평가’에서 지방 거점국립대학 화학과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세계 1,747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계 및 기업계 평판, 논문당 피인용 수, 교수당 학생 비율, 국제 연구 네트워크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대학 평가 중 하나다.

특히 전북대 화학과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순위가 상승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해 왔다.

연구 역량을 나타내는 H-index 피인용 수와 논문당 피인용 수 지표에

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며 세계적 수준의 연구력과 교육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 같은 성과는 BK21 Four, 에너지신산업, G-LAMP 사업 등 다양한 우수 연구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최첨단 연구 시설과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국제적 연구 네트워크를 확대해온 노력의 결과로 분석된다.

이승재 학과장은 “이번 QS 평가 결과를 계기로 앞으로도 화학 분야 발전과 지역사회 성장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세계적인 명문 학과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학교 경영대학은 지난 24일 자유관 106호에서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바이오씨엘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균형성장 위한 첨단교육 인프라 강화

전주대 경영대학,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 바이오씨엘과 협약

전주대학교 경영대학(학장 김효진)은 지난 24일 자유관 106호에서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박춘관), ㈜바이오씨엘(대표 이창경)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기업친화형 첨단교육 인프라 강화 및 기업 맞춤형 현장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식에는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박춘관 이사장과 ㈜바이오씨엘 이창경 대표, 전주대학교 경영대

학 김효진 학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약 기관들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산학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 △현장실무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경영대학 학생 대상 첨단교육 인프라 제공 및 취업 적극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대 · 경상국립대 공동 연구팀 ‘연구 성과’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상용화 앞당긴다

혁신적 콜로이드 잉크 기술로 효율 · 안정성 동시 향상

장기 안정성 입증… 대면적 모듈 성능 저하 최소화 성공

전북대학교와 경상국립대학교 공동 연구팀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혁신적인 ‘콜로이드 잉크 기반 대면적 코팅 기술’을 개발해 화제다. 이 기술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효율과 안정성을 동시에 향상시켜 대면적 모듈 제작에 적합하다는 평이다.

이번 연구 성과는 재료과학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인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Advanced Materials)’ 최신평에 게재됐다.

이에 따르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실리콘 태양전지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대면적 모듈 제작에 필요한 잉크 개발과 공정 기술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소형 소자에서는 26% 이상의 높은 효율을 달성했으나, 이를 대면적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효율이 크게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전북대(나석인 교수, 권성남 연구교수, 상례이 수필 박사과정)와

경상국립대(이태경 교수, 손수현 석사과정, 박상욱 석사과정) 공동연구팀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응매인 톨루엔(TL)과 클로로벤젠(CB)을 포함하는 콜로이드 잉크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이 기술은 슬롯-다이(slot-die) 공정을 통해 고효율 · 고안정성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와 모듈 제작을 가능케 했다.

연구팀이 개발한 콜로이드 잉크는 페로브스카이트 잉크의 유변학적 특성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

연구팀은 “콜로이드 잉크에 형성된 큰 콜로이드 입자들은 이중 핵생성을 촉진하고 결정화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 우수한 결정 성장과 필름 형태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발된 콜로이드 잉크를 활용해 슬롯-다이 공정을 통해 제작된 태양전지는 최대 21.32%의 효율을 달성했으며, 10,115시간(약 14개월) 동안 초기 효율의 77%를 유지하는 놀라운 장기 안정성을 보였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술의 확장성이다. 연구팀은 2.7cm²크기의 실험실 규모 미니모듈에서 20.26%의 효율을, 8.64cm²크기의 대면적 미니모듈에서 19.15%의 효율을 달성했다. 이는 대면적으로 확장해도 효율 손실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용화 가능성을 크게 높인 결과다.

연구를 주도한 권성남 연구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잉크 조성, 유변학적 특성, 필름 품질, 결정화 과정, 그리고 최종 소자 성능 사이의 복잡한 상관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었다”며 “특히 우리가 개발한 콜로이드 잉크 기반의 슬롯-다이 공정 기술은 고효율과 고안정성을 동시에 갖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와 모듈의 상용화를 크게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력공사, 경상국립대학교의 글로벌대학30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장은성 기자

뇌졸중 후유장애 개선 재활치유농업 연구 착수

전주기전대 연구팀

전주기전대학 최연우 학과장(치유농업과)이 이끄는 연구팀이 뇌졸중 후 편마비 후유장애 개선을 위한 재활치유농업 기술 실증 및 확산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5일 전주기전대학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농촌진흥청 원예과학원의 문지원 연구사가 개발한 재활치유농업 활용 기술을 기반으로 전주기전대학(호남권)을 비롯해 제주대학교(제주권), 천안연암대학교(충청권), 대구가톨릭대학교(경상권) 연구팀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실증 연구는 전주 보훈요양원의 3곳에서 미륵산늘품치유농장주(이혜숙)를 포함한 15명의 치유농장주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구에서는 각 지역 치유농장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뇌졸중 후 편마비 후유장애 개선을 위한 재활치유농업프로그램이 개발·적용된다. 특히, 연구과정에서 바이브라이미지를 활용한 치유농업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 이를 통해 재활치유농업이 뇌졸중 후유장



전주기전대학 최연우 학과장(치유농업과)이 이끄는 연구팀이 뇌졸중 후 편마비 후유장애 개선을 위한 재활치유농업 기술 실증 및 확산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에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최연우 학과장은 “이번 연구는 치유농업이 단순한 힐링을 넘어 재활치료 과학 분야에서 중요한 가능성을 보여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협력 대학 및 치유농장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치유농업이 국내 재활치료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장하며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중요한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장은성 기자

RISE 사업 참여로 미래 모빌리티 전문 인재 키운다

전주비전대,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와 협약 체결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지난 24일 (사)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회장 이형석)와 RISE 사업 참여 및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RISE 사업에 참여, 모빌리티 분야의 지역 주력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정주형 취 · 창업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2026년부터 오토바이 정비 분야 국가기술자격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형석 협회장은 “오토바이의 배달 및 운송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전문

적인 기술자격 없이 운영되는 정비업체가 많아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다”며, “이번 협력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병훈 총장은 “전문대학의 사명은 기술 기반의 전문 인력과 국가자격 교육을 통해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협회와 함께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산업체 기술교육 및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비전대 미래모빌리티학과

(학과장 백일현)는 오토바이 정비업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전문 시험장을 구축, 정비업 운영에 필요한 자격 취득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교육연수원

4~5급 관리자 연수 신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원장 민완성)은 25일 4~5급 관리자를 대상으로 ‘리더의 역량 이끌어내는 보고서 작성 및 보고법’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새롭게 도입된 과정으로, 리더의 보고 역량 강화를 통한 조직 내 성과 개선이 목적이다.

강사진으로는 ‘고수의 보고법’의 저자 박종필 고용노동부 대변인과 김용무 PTL 인사이드 대표가 직접 실전 중심의 보고법과 보고서 작성 코칭 방법을 전수했다.

민완성 원장은 “4~5급 관리자 대상 교육과정을 새롭게 도입했다”며 “리더의 역량 강화가 조직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기폭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